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2:24-3:7
2026 년 1 월 18 일 오전 11 시

하와의 실수

< 주여 도우소서 >

여러분,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짐 캐리(Jim Carrey)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Bruce Almighty)>라는 영화는 이러한 주제를 다소 코믹하면서도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브루스는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인 뉴욕주 버펄로 지방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입니다. 재미있고 소박한 이웃들 얘기를 단골로 맡아 재미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별 볼일 없는 취재거리가 늘 불만입니다. 곧 은퇴할 앵커의 후임이나, 적어도 극적인 사건의 현장을 전하는 게 그의 바램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불만인 브루스는 설새없이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루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브루스 앞에 나타나 브루스에게 며칠간 전지전능한 힘을 주고,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보자고 합니다. 브루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라이벌 앵커를 쫓겨나게 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올라오는 수백만 가지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는 것이 귀찮아 모두 Yes 라고 응답을 내리자, 세상은 온통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된 인간의 오래된 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에 속아 넘어 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천사인 사단은 자신과 같이 인간들도 타락하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 절을 보면, 뱀은 혼자 있는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와는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와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하와는 아담의 일을 돕는 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1. 고립된 순간의 위험

아담의 일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 그래서 하와는 늘 아담과 함께 에덴동산을 돌보러 다녔습니다. 헌데 이 날은 무슨 일인지 하와가 혼자 있었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함께 있었을 때 사단이 접근하지 못했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고립된 순간’을 노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한다고 할 때,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센 동물이라 할지라도 얼룩말들이 함께 있을 때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무리에서 이탈하는 얼룩말이 좋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하나되어 함께 있을 때는 사단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예배와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찾아옵니다. 혼자 떨어져 나와 있을 때,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 장 1 절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잠 18:1). 여러분, 가족과 교인들과 잘 어울리세요. 가족이 함께 뭉쳐

있고, 교인들이 뿔뿔 뿔쳐 있을 때에는 사단이 틈을 탈 수 없습니다. 현대 하와는 아담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하와의 두 번째 실수는 뱀과 말을 섞은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2-3 절). 이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4-5 절).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서 잘못되는 경우 없고, 사단과 말을 섞어서 잘되는 경우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의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고 올바르게 되지만, 사단과 말을 섞으면 나의 바른 생각도 잘못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예 간교한 뱀과는 상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뱀이 접근해 와서 저렇게 질문을 했어도 하와가 외면을 하고 상대하지 않았다면, 뱀은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과는 아예 교제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전 5:11).

제가 오랜 시간 영적 싸움을 벌인 간교하기 이틀데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홈리스 직전까지 갔습니다. 현대 그 사람이 회유를 합니다. 자신에게 인사 한 번만 하면 일년 더 후원하겠다고. 주변에서 다 권면합니다. 박목사님, 전화 한 번 드리세요. 지금은 고개 숙이시고 후원받으세요. 제 아내도 그렇게 하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저도 고민됩니다. 현대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5 장 11 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가장 높은 지위와 뱀의 혀를 가지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후원은 당연히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헌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열립니다.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제 소식을 듣고는 교회 재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원래 후원받기로 약속된 금액보다 더 많았고, 더 오랫동안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간교한 뱀과는 말을 섞는 것이 아닙니다.

2. 말씀에 더하는 위험

하와의 세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인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3 절). 여러분, 하와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창 2:16-17 절을 볼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6-17).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만지지 말라는 또 다른 계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잘못입니다. 하와는 아마도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는 계명을 덧붙였는지도 모릅니다.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으면 먹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덧붙인 계명은 하나님을 오해할 여지를 만들고 이것이 결국 죄에

빠지는 실마리가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덧붙인 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다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계명을 덧붙였습니다. 안식일에 곡식을 타작하면 안된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된다. 안식일에 일정 거리 이상 걸으면 안된다는 계명 등등 여러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계명에 덧붙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비를 잃어버린 신앙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 장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일이 나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마 12:1-7).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판단이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다고 보고 유죄를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라고 하며 무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덧붙인 계명을 가지고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죄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유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인 것이 생각나십니까? 그것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계명을 만들어서 원래의 계명에 덧붙이는 실수를 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믿는 위험

하와의 네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4 절).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현대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거짓말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명백하게 죽는다고 경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타락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타락은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뱀의 말을 더 믿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마 7:19). 현대 사단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거짓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현대 현실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기가 막힌 속임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5 절)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으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습니다. 참, 그럴 듯 합니다.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긴 한데, 그럴 듯하다는 데서 위협적입니다.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나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한다는 ‘다른 복음’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이 진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요 8:11).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지난 날의 죄와 허물은 용서받지만, 용서받은 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히 6:5-6). 예수님께 간음죄를 용서받고 가서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간음을 행한다면 이는 타락입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고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다른 목소리를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와의 타락은 큰 죄나 극적인 반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떨어져 있었던 작은 방심에서 시작되었고, 사단과 말을 섞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는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보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키고 함께 깨어 있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